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경험 연구

김예진*·윤혜선** 동덕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인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수업을 중심으로 무용 전공자의 현장실습 경험과정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현장실습 운영체계의 질적 개선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을 토대로 구성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측정방법으로는 맥락적 학습모형의 분류방법인 '개인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물리적 맥락'을 분류기준으로 적용하였고, 개방형 설문과 인터뷰 녹취자료를 취합하여 전문가 집단의 회의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첫째, '개인적 맥락'의 세부요소인 '기대와 동기', '선행지식의 흥미, 신념', '선택과 조절'에 대한 경험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문화적 맥락'의 세부요소인 '집단 내에서의 사회문화적 중재', '타인에 의해 촉진된 중재'에 대한 경험과정을 분석하였다. 셋째, '물리적 맥락'의 세부요소인 '선행 조직자들과 오리엔테이션', '이벤트 및 체험의 강화'에 대한 경험과정을 분석하였다. 넷째, 무용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경험분석을 통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맥락적 학습모형의 세 가지 맥락별 경험분석의 과정에서 도출된 맥락간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관선정 및 관리의 문제', '실습시간 운영구조의 문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을 위한 교과과정 연계성의 문제'로 분석되어 각각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수업의 체계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교수자와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운영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무용전공자, 맥락적 학습모형, 경험 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과 교육 분야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 12월 29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정 이후로 본격적인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어 발전하고 있다(홍애령, 박재근, 2018).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2015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예술분야에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적 함양을 위한 교육"(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 3조 1항)을 지향하며, 예술가로

*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 무용과 강사, nana1729@dongduk.ac.kr

**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 무용과 부교수, art@dongduk.ac.kr, 교신저자

서의 전문성 뿐 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자의 자질과 함께 다각적인 역량을 갖춘 예술가를 국가차원에서 양성하는 제도로 진보해가고 있다.

이에 대학 무용관련 학과들도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무용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학부의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무용전공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예술교육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무용전공자는 예술가로서 무용의 전문성 함양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의 보편적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창의적인 무용교육 콘텐츠 개발과 대상에 맞는 다양한 교수법 연구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자질 함양 등 다양한 역량개발을 요구받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및 취업연계에 대한 선행연구들(권영임, 차수정, 2015; 김민정, 2017; 최용아, 2016; 탁지현, 2018; 홍애령, 박재근, 2018)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교육과정 및 연수교육의 문제, 자격 취득 및 취업관련의 문제, 실습현장에서의 문제, 근로조건 및 강사 처우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양성하고 발급하는 기관과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좀 더 전략적인 방법으로 개선점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육현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은 교육사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교과로 인식되어 교과 내용과 운영구조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권남희, 조희선, 최재영, 2017).

최근 교육 분야에서는 교과과정의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Falk와 Dierking(2007)의 맥락적 학습모형(Contextual Model of Learning) 이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교수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을 활용한 연구들(강인애, 이현민, 김양수, 2015; 김민주, 2016; 박경선, 나일주, 2011; 서예원, 2007; 조우리, 2015)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주의 인식론에 의하면,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은 개인별 인지 작용에 따른 결과로써 동일한 경험을 하더라도 개개인의 고유한 선지식과 관심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강인애, 설연경, 2009). 즉, 무용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함께 발동하기 위해서는 맥락적 학습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은 개인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물리적 맥락의 주요한 세 가지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민성훈, 2017). 이에 문화예술교육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을 적용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미술관 및 박물관을 견학하는 과정에서 관람객의 경험과정을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의 개인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물리적 맥락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진행한 연구들(김선영, 2017; 김이훈, 2013; 민성훈, 2017; 박연희, 2012)과 미술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위한 현장실습 관련 연구(권남희, 조희선, 최재영, 2017)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무용분야에서는 아직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을 적용한 연구사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의 세 가지 주요 개념을 토대로 무용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경험과정의 의미와 수업환경의 질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을 토대로 무용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경험과정을 분석하고 수업환경의 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와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체계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운영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개인적 맥락의 경험은 어떠한가?
- 둘째,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경험은 어떠한가?
- 셋째,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물리적 맥락의 경험은 어떠한가?
- 넷째, 무용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경험분석을 통한 개선점은 무엇인가?

II.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수업과정

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을 위한 교과과정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수업은 수업을 통해서 습득한 교육이론과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학습자가 교육대상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향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적응하여 창의적이고 탄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교과목이다. 이 수업은 서울시에 소재한 D여자대학교 무용과에서 2017년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의 필수 과목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개설하였으며, 해당 대학의 무용과에서 재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 수업은 2017년과 2019년에 격년으로 2년 동안 한 학기씩 주1회 3시간 수업으로 15주간 진행되었다. 수업구조는 이론수업과 함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현장실습 기관에서 9시간 이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을 경험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 수업의 교수자는 2인으로 각각 20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관련 현장경험과 더불어 무용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2명의 교수자는 D여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 분야인 5개의 주요과목을 총괄 지도하고 서로 협력하여 각 과목 간에 연계성과 급변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트렌드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을 위한 관련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 수업의 교과과정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지도방향과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업을 수강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선행과목들을 2과목 이상 수강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이해를 기본적으로 인지한 상태였고, 졸업 후 취득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도를 고려하여 이 수업에서는 무용전공자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습득하여 무용관련 새로운 진로분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우선적인 주안점을 두고 지도하였다. 또한 이 수업이 현장실습 수업이라는 점에서 무용전공자가 교육현장에서 지도할 때 기획한 프로그램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양한 학습자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실제적으로 발휘하고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수업은 2017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침에 따라 구성된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지도하였고, 주차별 강의요목은 <표 1>과 같다.

표 1.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주차별 강의요목

주차	핵심영역	주제	수업진행방식	수업시간
1		강의 소개	강의, 토론	3시간
2	문화예술교육 현장 이해와 탐색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	강의, 토론	3시간
3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장 사례연구	강의, 토론	3시간
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장 사례연구	강의, 토론	3시간
5		문화예술교육 현장 탐방	강의, 토론	3시간
6		문화예술교육 현장 현황	발표, 토론	3시간
7	현장실습 준비 및 계획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계획1 (현장실습의 목표 및 유의사항)	강의, 토론	3시간
8		중간고사	필기시험	3시간
9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계획2 (기관 및 대상 분석)	발표, 토론, 피드백	3시간
10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계획3 (프로그램 설계)	발표, 토론, 피드백	3시간
11	현장실습 및 성찰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1	현장실습 활동	3시간
12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2	현장실습 활동	3시간
13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3	현장실습 활동	3시간
14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소감 및 실습 결과 발표	발표, 토론, 피드백	3시간
15		기말고사	필기시험	3시간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D여자대학교 무용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수업이 격년으로 운영되었던 2017년과 2019년 2년간의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수업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검증과정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라는 뜻밖의 상황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2020년도 수업의 실습 진행 구조가 변경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게 됨으로써 부득이하게 2년간의 연구 대상자 범위에서 진행하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2017년과 2019년에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에서 현장실습 참여도가 낮거나, 출석률이 저조한 학생들은 제외하고 현장실습 기관의 평가와 현장실습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학생들 중에 심층면담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표기는 알파벳으로 표기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11)

명칭	전공	나이	무용경력	현장실습 참여 분야
A	한국	23	10년	공교육 분야
B		22	8년	문화예술 전문 분야
C		22	6년	공교육 분야
D		25	12년	문화예술 전문 분야
E	현대	23	6년	문화예술 전문 분야
F		22	8년	공교육 분야
G		22	6년	문화예술 전문 분야
H		23	7년	문화예술 전문 분야
I	발레	22	9년	문화예술 전문 분야
J		24	10년	문화예술 전문 분야
K		22	8년	문화예술 전문 분야

2. 측정방법

이 연구는 D여자대학교에서 2017년과 2019년 2년 동안 격년으로 개설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수업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경험과정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측정도구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경험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Falk와 Dierking(2007)의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을 토대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 참여자의 체험연구에 대한 선행연구(권남희, 조희선, 최재영, 2017)를 참고하여 전문가 집단의 회의를 통해 심층면담을 위한 개방형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은 학습자 환경에서 연속적으로 축적된 시간을 통해 쌓인 세 가지 맥락인 개인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물리적 맥락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형성하는 체험의 경험(권남희, 조희선, 최재영, 2017)을 말한다. 즉, 현장실습 과정에서 준비하는 시간과 개인의 심리상태를 통해서 ‘개인적 맥락’을 형성하고, 체험하는 경험들 속에서 대인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경험하며, 기관과의 오리엔테이션과 개인이 경험 후에 느끼는 동기의 강화로 ‘물리적 맥락’을 재형성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중재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을 토대로 심층면담을 위해 구성한 개방형 설문의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개방형 질문의 주요 내용

범주	내용
개인적 맥락	· 현장실습 전 준비한 과정은 무엇인가? · 현장실습 전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은 어떠했나요?
사회문화적 맥락	· 현장실습 시 실습 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의 경험은 어떠했나요? · 현장실습 시 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점은 무엇인가?
물리적 맥락	· 현장실습 후 문화예술교육사 업무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점은 무엇인가? · 현장실습 후 관심이 증가하거나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

2)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수업이 격년으로 개설된 2017년과 2019년 2년 동안 각각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구조에서 연구내용을 취합해서 진행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자의 심층면담은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1차로는 수업이 종료되는 마지막 주에 개방형 질문지를 연구 대상자가 자기 평가 기입법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2차로는 심층면담으로 1차 개방형 질문의 응답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를 포함한 20년 이상 문화예술 관련 교육경력이 있는 무용학 박사 2인이 분담해서 개별 인터뷰로 진행하였고, 인터뷰 장소는 연구 대상자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1인당 60분~80분 정도로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취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의 연구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1차 개방형 질문의 응답내용과 2차 심층면담 내용을 주요 분석자료로 선정하여 Falk와 Dierking(2007)의 연구와 권남희, 조희선, 최재영(2017)연구를 참고하여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경력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무용학 박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였고,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의 세 가지 주요 개념을 기준으로 세부요소에 따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이 연구에서 무용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경험과정의 분석을 위해 적용한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을 토대로 한 범주 및 세부요소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을 적용한 무용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경험과정 분석의 범주 및 세부요소

맥락적 학습모형	세부요소
개인적 맥락	기대와 동기 선행지식의 흥미, 신념 선택과 조절
사회문화적 맥락	집단 내에서의 사회문화적 중재 타인에 의해 촉진된 중재
물리적 맥락	선행 조직자들과 오리엔테이션 이벤트 및 체험의 강화

1.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개인적 맥락의 경험은 어떠한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경험 중에 ‘개인적 맥락’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무용전공자가 현장실습 전에 경험하는 개인의 심리상태와 수업의 준비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적 맥락’에 대한 심층면담 내용의 분석을 위해 세부요소는 ‘기대와 동기’, ‘선행지식의 흥미, 신념’, ‘선택과 조절’로 분류하여 각 세부요소에 따른 응답내용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기대와 동기

‘기대와 동기’ 분석을 위한 주안점은 현장실습 전 무용전공자가 현장에 대한 기대감과 현장실습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동기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주요한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실습을 통해서 예술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긍정감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서 유치원 친구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어요. [연구 참여자 C]

누구를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데, 이번 기회로 교육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연구 참여자 E]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다양한 교육들을 받았었는데, 현장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들을 학생들에게서 얻고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작 전에 두려움 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H]

엄마가 예술전공자로 음악관련 봉사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저도 가르쳐 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주로 엄마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셔서 친근하고 부담 없는 초등학생들에게 관심이가서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J]

보통은 문화센터나 무용학원 등에서 무용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문화예술교육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도서관은 무용전공자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현장이니깐 현장실습을 통해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K]

개인적 맥락에서 ‘기대와 동기’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 전에 실습활동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높았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무용전공자가 실습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동기과정에서는 명확하게 분석되지는 않았으나 주로 자신이 친숙한 대상을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2) 선행지식의 흥미, 신념

‘선행지식의 흥미, 신념’ 분석을 위한 주안점은 무용전공자가 현장실습 전에 현장실습 기관에 대한 선행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대상자에 맞춰 자신만의 교육신념을 가지고 현장실습을 준비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주요한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결합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역사와 예술을 연결해 보았어요. [연구 참여자 A]

기존에 배웠거나 가르쳤던 방식인 지식습득 방식 보다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지도하는 수업이니 만큼 활동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어요. [연구 참여자 C]

매번 기관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무용학원에서 가르쳤었는데,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니깐 떨리기도 하고 수업을 많이 들었지만 막상 준비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소신 있게 대상자에 맞는 수업을 준비했어요. [연구 참여자 F]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의 특성에 맞게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계획했어요. [연구 참여자 G]

주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경험한 친구들이 드물어서 현장실습을 가기 전에 선배 문화예술교육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현장실습 사례를 ‘아르떼’ 사이트를 통해서 시청하기도 하면서 의미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점검했어요. [연구 참여자 J]

개인적 맥락에서 ‘기대와 동기’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현장실습 전 무용전공자는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해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소신을 갖고 학습한 다양한 정보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3) 선택과 조절

‘선택과 조절’ 분석을 위한 주안점은 무용전공자가 현장실습 기관을 선정하고 수업시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주요한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도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실습장소와 여건에 맞는 지역아동센터를 위주로 계속적으로 시도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연구 참여자 B]

수업과 실기도 병행하면서 현장실습을 가야 하니깐 학교나 집과 가까운 곳으로 정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대학교에서 수업이 있으니깐 공강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려니 마음에 맞는 기관을 찾기가 힘들어서 10곳 이상을 전화해서 알아 본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D]

기관을 선택하고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죠. 기관을 선택하는 부분은 제가 혼자서 알아봐야 하는 것이라 원하는 곳을 먼저 선정했는데, (중략) 원했던 곳을 계속 거절당하니깐 힘들기도 하고 실습 당일 날 수업이 갑자기 취소가 된 경우도 있어서 대학생이라 기관에서 너무 합부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E]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기관과 잘 부합되는지를 살펴면서 기관을 선택하고 시간을 분배하려고 노력했지만, (중략) 제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연구 참여자 H]

실습시간을 기관과 학교상황에 맞춰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져 주말에 수업을 하는 기관을 알아보았어요. 기관을 못 구해서 친구들 중 주말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현장실습을 한 친구도 있었어요. (중략) 그리고, 한 기관에서 9시간을 모두 이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여러 기관으로 시간을 나눠서 현장실습을 가게 되어서 매번 새롭게 만나는 아이들과 짧은 시간 동안 수업하고 헤어져야 해서 아이들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아쉬웠어요. [연구 참여자 K]

개인적 맥락에서 '선택과 조절'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실습 학생으로서 무용전공자가 현장실습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은 학생 본인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보다는 기관의 담당자에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실습 기관을 선정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시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실습 학생으로서 선택권한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학생 신분으로 학부의 교과과정 일정에 맞춰서 실습시간을 배정해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적 맥락'에서 무용전공자가 경험한 심층면담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세부요소 중 '기대와 동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높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는 동기과정에서는 명확하게 분석되지는 않았으나 주로 자신이 친숙한 대상을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선행지식의 흥미, 신념'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현장실습 전 무용전공자는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해 흥미를 가지며 소신을 가지고 준비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용전공자가 개인의 신념을 가지고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현장실습 사례를 경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은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수업 뿐 아니라 특강, 워크숍, 로드맵 등을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홍애령과 박재근(2018)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실습 사례를 학습 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선택과 조절'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무용전공자는 기관을 섭외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안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지역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근지역으로 현장실습을 파견할 수 있는 기회와 표준화된 실습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기관을 섭외하는 어려움을 절감시켜 줄 필요성이 절실하며, 권남희, 조희선, 최재영(2017), 탁지현(2018)의 의견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인식 할 수 있었다.

2.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경험은 어떠한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경험 중에 '사회문화적 맥락'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무용전공자가 현장실습 시에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대상자와의 관계와 수업을 함께 진행한 동료나 조력자의 역할, 그리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인상적인 경험이나 기관 및 타인에게 도움을 받은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심층면담 내용의 분석을 위해 세부요소는 ‘집단 내에서의 사회문화적 중재’, ‘타인에 의해 촉진된 중재’로 분류하여 각 세부요소에 따른 응답내용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집단 내에서의 사회문화적 중재

‘집단 내에서의 사회문화적 중재’는 무용전공자가 현장실습 시 현장실습 대상자와의 관계와 수업을 함께 진행한 동료나 조력자들과의 관계와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주요한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로 여자 친구들만 지도하다가 수업 중에 산만한 남학생 들이 있어서 제가 수업이 적응이 안 되고 힘들었어요. 다행히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께서 걱정이 되셨는지 수업시간에 옆에서 남학생들을 중재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E]

어린 아이들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처음에는 통제가 어려웠어요. 한 곳을 신경 쓰는 동안에 제가 안 보이는 뒤에서 장난치거나 다투는 상황들도 생기고 무용을 전공하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서 어려웠어요. [연구 참여자 F]

미술과 융합한 수업으로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어요. 물론 계산을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지만 만드는 과정의 소요시간이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진행이 더뎠는데, 함께 수업을 진행했던 보조교사가 아이들이 가위로 오리는 것도 도와주고 눈치 있게 움직여줘서 사고 없이 수업을 마무리 했어요. [연구 참여자 G]

저는 혼자서 현장실습을 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친구와 팀이 돼서 현장실습을 진행했어요. 같이 현장실습에 참여한 친구가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어주고 도와줘서 수업의 방향성에 맞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었고, 현장실습을 함께하면서 친구와 동지애가 생겨서 더 끈끈해 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H]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집단 내에서의 사회문화적 중재’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현장실습 과정에서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 대상이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친숙하지 않은 대상을 만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취학 전 아동과의 수업에서는 통제방법에 대한 어려움과 수업 지도시간의 운영 등 현장실습 대상의 특성에 따른 교수자로서 역할과 중재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의 상황에서 학습자들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동료교사나 보조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2) 타인에 의해 촉진된 중재

‘타인에 의해 촉진된 중재’는 무용전공자가 현장실습 과정에서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이나 기관 및 타인에게 도움을 받은 부분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주요한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현장실습으로 처음 만난 저에게 실외수업도 나가게 해주시고, 프로그램이 다 끝난 뒤에도 잘한 부분을 칭찬해주시고 보완할 부분도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기억에 남았어요. 기회가 된다면 졸업을 하고 다시 그 기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C]

프로그램을 기관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기관의 선생님께서 대상에 맞는 아이 디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셔서 프로그램과 함께 바자회도 열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처음이라 너무 새롭고 즐거웠어요. [연구 참여자 D]

아이들과 재미있게 수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갔는데, 기관의 관계자 선생님께서 혼자서 준비하기 힘들다고 책상과 의자도 같이 치워주시고 풍선에 바람을 넣는 기계를 말씀도 드리기 전에 알아서 빌려주셔서 풍선을 부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연구 참여자 I]

주말에 도서관 수업을 하러가는 길에 차사고가 나서 제시간에 갈 수가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당황했는데, 수업담당 교수님께서 현장실습 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전화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전화로 교수님께 저의 상황을 알리고 방법을 여쭙봤어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난감했지만,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대처하니 도서관 사서선생님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넘어 갈 수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K]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타인에 의해 촉진된 증재'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 경험과정을 통하여 대상자 뿐 아니라 기관의 종사자와 협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배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무용전공자가 경험한 심층면담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세부요소 중 '집단 내에서의 사회문화적 증재'에 대한 분석 결과는 무용전공자는 친숙하지 않은 대상을 만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거나 새로운 인관관계를 맺는 과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수업 지도시간의 운영과 대상의 특성에 따른 교수자로서 역할과 증재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용전공자는 수업시간에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동료교사나 보조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인에 의해 촉진된 증재'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무용전공자는 현장에서 또 다른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현장실습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가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전문가들과의 전문성으로 도움을 받고, 타인과 협업하는 과정을 경험 할 수 있다는 권남희, 조희선, 최재영(2017)의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용전공자는 돌발 상황이나 실습현장에서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교사나 보조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습 유경험자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집단 구성원들과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무용전공자는 실습과정에서 집단 활동에서의 협력방법과 현장 적응력 및 순발력을 발휘하는 긍정적인 경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물리적 맥락의 경험은 어떠한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경험 중에 '물리적 맥락'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무용전공자가 현장실습 전에 현장에 대한 기관과의 오리엔테이션과 현장실습 경험 후에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발전될 수 있는 동기의 강화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또한 '물리적 맥락'에 대한 심층면담 내용의 분석을 위해 세부요소는 '선행 조직자들과 오리엔테이션', '이벤트 및 체험의 강화'로 분류하여 각 세부요소에 따른 응답내용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선행 조직자들과 오리엔테이션

‘선행 조직자들과 오리엔테이션’의 분석을 위한 주안점은 현장실습 전 무용전공자가 미리 현장실습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 받거나 준비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주요한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실습한 기관은 다행스럽게 저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을 하러 온 다른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A]

모든 수업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진행되지는 않더라고요. 시간배분도 그렇고, (중략) 현장실습 전에 미리 확인을 못 했는데, (중략) 앞으로는 수업 전에 교실환경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B]

수업 전에 어린이집 계단을 본 게 생각나요. 제가 어린이집을 평소에는 갈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스폰지로 계단 곳곳을 붙여 둔 모습과 울타리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 모습을 수업 전에 확인 할 수 있었어요. 아... (중략)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하는구나... (중략) 어린 아이들은 이런 위험이 발생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위험에 대한 돌발 상황에 대해 더 주의하면서 수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C]

현장실습을 위해 이 전 학기에도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수업도 듣고 자료도 많이 준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서의 사전 교육은 없었어요. (중략) 지도를 해보니 장소의 특성이나 대상에 따라서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활동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론으로는 배웠지만 현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D]

물리적 맥락에서 ‘선행 조직자들과 오리엔테이션’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 전 미리 현장실습 기관에서 대부분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함으로써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실습기관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을 위한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을 나가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가 현장실습 환경의 특성을 미리 인지하여 대상의 특성과 돌발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이벤트 및 체험의 강화

‘이벤트 및 체험의 강화’ 분석을 위한 주안점은 무용전공자가 현장실습을 경험 후 문화예술교육사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과정과 현장실습 경험 후 관심이 증가되거나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주요한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과정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기관의 관계자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기관을 섭외할 때 전화로 현장실습을 이런저런 이유로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교육사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중략) 사람들이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예술전공자들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C]

무용을 전공한 제가 타 예술 장르와 융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무용을 여러 장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예술과 예술과의 융합 수업을 직접 지도해 보니 생각보다 더 수업의 반응도 좋았고, 만족감도 높아 졌어요. [연구 참여자 D]

현장실습을 갔다 와서 문화예술교육사에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공모전에도 도전하고 다양한 연령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쌓을 예정이에요. [연구 참여자 F]

대학을 입학하고 무용수로만 직업을 생각했었는데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지도보다도 기획에 관심이 가고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대상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연구 참여자 G]

솔직히 자격증을 취득할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고, 친구들이 들어서 같이 따라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현장실습을 하고 나니 제가 생각하는 직업관과 여러 가지가 연결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격증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연구 참여자 J]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현장실습의 기회를 경험하게 되어서 값지고 보람된 시간이 되었어요. 현장실습 과정을 경험하면서 예술교육에 대한 가치와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진로에 대한 방향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K]

물리적 맥락에서 ‘이벤트 및 체험의 강화’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 과정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 파악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다양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의미를 통찰하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과 진로의 방향을 탐색하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리적 맥락’에서 무용전공자가 경험한 심층면담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세부요소 중 ‘선행 조직자들과 오리엔테이션’ 관련 경험에 대해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 전 현장실습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거나 오리엔테이션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실습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벤트 및 체험의 강화’ 경험 분석을 통해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진로 탐색 및 현장실습을 통해 무용과 예술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과정이 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무용전공자들이 타 예술 장르와 융합한 프로그램 개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예술장르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는 윤혜선과 김예진(2019)의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 과정 후에 문화예술교육사와 관련된 방향으로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현재 무용전공자가 대학에서 배운 교육과 현실과의 괴리로 자신의 능력과 직업 선택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박지숙, 2009)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수진과 오을자(2017)의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과정이 현시대에 요구되는 무용전공자의 전문성과 무용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예술분야관련 직업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 교과과정에서 직업과의 연계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무용전공자의 진로모색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4. 무용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경험분석을 통한 개선점은 무엇인가?

이 연구의 마지막 연구문제는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의 세 가지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무용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경험과정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에 의하면 학습과정에서 ‘개인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물리적 맥락’의 경험과정을 통합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진정한 학습을 경험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민성훈, 2017).

이에 이 연구에서는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의 세 가지 주요 개념에 따라 분류된 무용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경험과정을 분석하여 세 가지 맥락에 따른 학습경험의 상호작용 촉진을 저해시키는 공통적인 문제들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현장실습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의 세 가지 주요 개념에 따른 요소별 경험과정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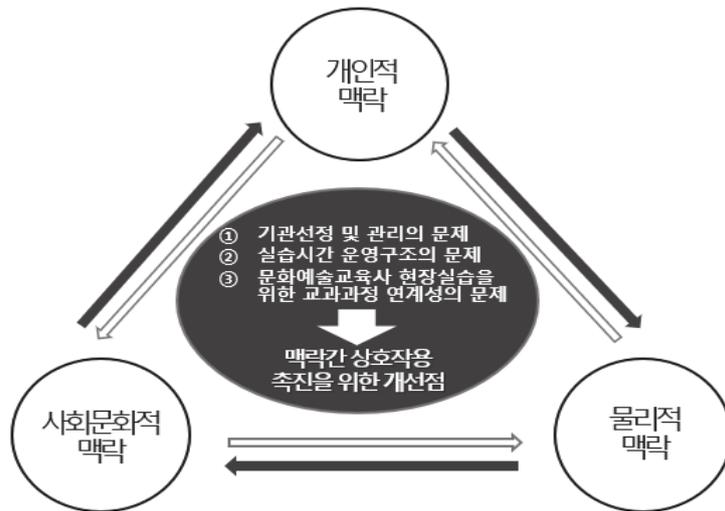


그림 1.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을 통해 무용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경험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들

이러한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의 세 가지 맥락별 경험과정 분석을 통해 각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도출된 문제점은 ‘기관선정 및 관리의 문제’, ‘실습시간 운영구조의 문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을 위한 교과과정 연계성의 문제’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학습 경험을 무용전공자에게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수업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개인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물리적 맥락’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학습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각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세 가지의 공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기관선정 및 관리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의 세 가지 맥락별 경험과정 분석과정에서 탐색된 첫 번째 문제점은 ‘기관선정 및 관리의 문제’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 경험과정을 통하여 현장실습 활동의 어려움 보다는 수업 전 현장실습 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장실습 기관 선정은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기관에서도 문제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실습 수업을 수강하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가 현장실습 기관을 선정하지 못해서 개인별로 많게는 5~6개의 기관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장실습 활동의 질적 만족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양성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또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현장실습 기관 중에는 파견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안전한 실습환경인지 여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다양한 현장실습 기관에서 활동하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개개인에게 현장실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이나 사고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현장실습 기관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현장실습의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습기관 측에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를 실습생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예비 문화예술교육사가 개인의 재량으로 현장실습 기관을 섭외하는 과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권남희, 조희선, 최재영, 2017). 이에 ‘기관 선정 및 관리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현장실습 기관 선정방법을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개인의 재량으로 선정하도록 진행하기 보다는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현장실습 파견 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습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현장실습을 하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 기관의 협력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현장실습 기관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양성기관과 현장실습 기관과의 네트워킹 구축 방안의 마련을 통해서 양성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현장실습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가 현장실습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현장실습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과정의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권남희, 조희선, 최재영, 2017). 양성기관에서 다수의 예비 문화예술교육사가 현장실습 활동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에서 제도적으로 양성기관과 근접한 지역사회에 위치한 기업, 공공기관, 예술단체 등과 MOU 체결을 통해 현장실습 지정 기관을 확대 마련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한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2) ‘실습시간 운영구조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의 세 가지 맥락별 경험과정 분석과정에서 탐색된 두 번째 문제점은 ‘실습시간 운영구조의 문제’로 분석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과정을 지정교육기관이 아닌 대학 학부구조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권고기간이 한 학기로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은 효율적이고 안정된 현장실습 과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습시간 운영구조의 문제를 개선한다면 현장실습을 경험하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는 현장실습 시간을 확보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성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장실습 기관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출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조희선, 권남희, 최재영, 2018).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의 교과과정에 현장실습 주관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예비 문화예술교육사가 개인적 재량으로 기관을 섭외하더라도 원하는 시간대에 현장실습 시간을 맞추는 것은 해당 현장실습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교과과정의 현장실습 일정에 실습시간을 맞추는 것은 예비 문화예술교육사가 해결해야 할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예비 문화예술교육사가 현장실습 기관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겪는 구체적인 문제사항으로는 적합한 실습처 선별능력,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 기관을 섭외하는 과정으로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다(권남희, 조희선, 최재영, 2017). 실질적으로 이 연구에서도 무용전공자가 현장실습을 위해서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학교 인근에 위치한 현장실습 기관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러한 무용전공자의 요구도를 충족할 만한 현장실습 기관은 매우 희소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의 무용전공 학생은 대부분 학부과정에서 바쁜 학부수업의 일정과 매 학기마다 준비해야 하는 공연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주중에 현장실습 시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많은 무용전공 학생은 주말에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편이다. 때문에 한정된 시간의 범위에서 실습시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 본인이 원하는 실습기관을 선택하기 보다는 실습시간 배정의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게 되어 이러한 실습환경은 현장실습의 의미와 경험 몰입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문제는 대학의 학부의 교과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공통된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 진행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수업에서는 이러한 실습시간 배정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실습 해당 주간 외에 학기 중

두 달여의 기간 동안 무용전공자가 여유 있게 현장실습 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용전공자가 학부과정을 병행하는 구조에서는 원하는 현장실습 일정을 제공하는 현장실습 기관을 찾는 것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습시간 운영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해 본다면, 대학에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교직이수과정을 위해 진행되는 교생실습이나 인턴십 제도의 구조처럼 한 달여의 실습기간 동안 현장실습 경험에만 몰입할 수 있는 실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전공학과와 타 교과 수업에서도 배려해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학의 행정 구조적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적으로 이 실습시간 배정과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을 위한 교과과정 연계성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의 세 가지 맥락별 경험과정 분석과정에서 탐색된 세 번째 문제점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을 위한 교과과정 연계성의 문제'로 분석되었다.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를 배우는 대부분의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무역량 이수과목인 5과목 중 가장 마지막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에서 무용전공자는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 이수과목들을 통해 많은 지식을 접하게 되지만 막상 현장실습 과정에서 그동안 학습한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과목들에서 지식과 역량을 현장실습 활동과 연결지어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서 현장실습 과목은 문화예술교육사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이론과 원리를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고 그 타당성을 검증, 개선, 내면화 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교과목의 학습한 지식을 실습교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홍서현, 2020). 하지만 이 연구의 연구자들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가 2016년 이후 신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수업을 처음 지도했던 2017년도에는 교수자가 각 과목별로 새로운 수업을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장실습 과목과의 연계성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진행하게 되어 학생들이 실습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과목을 지도한 교수자 2인은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이수 과목 간의 효과적인 연계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업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함께 의미 있는 학습활동으로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교수행동을 개발하고 증진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교수행동 전략은 문화예술교육사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가 수업의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학문적 노력을 뒷받침 하여야 한다(차은주, 2018).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도 교수자 2명이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분담하여 지도하는 구조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교수자는 현장실습 수업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 직무역량 과목간의 유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교수자간의 정보와 학생들의 요구도를 분석하고 각 과목별 특성에 대해 발전시켜 나가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 활동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도함으로써 과목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자의 노력을 통해 2019년도 이후로 점차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수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한 해에 한 팀씩 당선되었고, 5명의 학생이 문화예술교육 관련 국공립 기관에 취업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사 교과과정 운영 전에 비해 현장실습 교과목을 운영한 최근 3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를 관찰하며 문화예술교육사 과목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을 지도하는 교수자의 공동연구와 협력과정

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학부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과정의 5가지 직무역량 교과과정이 교육과정 교과목의 개설여부에 따라 시기별로 매 학기마다 변경되거나 모두 개설되지 못하는 상황도 많기(홍애령, 임수진, 2020) 때문에, 현장실습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다양하게 습득하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관련 교과과정을 지도하는 교수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함께 협력하기 어려운 여건을 갖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교과과정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자의 노력이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관찰함으로써 향후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기관에서 5개의 직무역량 교과목을 모두 개설하는 구조에서 교수자의 협력과정과 지속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 현장실습 과목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의 과정에서 무용전공자의 경험을 개인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물리적 맥락의 관점에서 도출한 공통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공통적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위한 종합적인 제언사항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들의 다양한 고충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문화예술교육사 교수자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들과 교수자들에게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사 교과과정인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수업을 중심으로 무용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과정의 의미에 대해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과 심층면담을 통해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의 주요 개념인 ‘개인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물리적 맥락’을 분류 기준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순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맥락’의 경험과정은 세부요소인 ‘기대와 동기’, ‘선행지식의 흥미, 신념’, ‘선택과 조절’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높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현장실습 전 무용전공자는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해 흥미를 가지며 소신을 가지고 준비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 준비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보다 기관의 섭외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문화적 맥락’의 경험과정은 세부요소인 ‘집단 내에서의 사회문화적 중재’, ‘타인에 의해 촉진된 중재’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무용전공자는 친숙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교수법 및 수업시간 분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용전공자는 돌발 상황이나 실습현장에서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교사나 보조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실습 유경험자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집단 구성원들과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무용전공자는 실습과정에서 집단 활동에서의 협력 방법과 현장 적응력 및 순발력을 발휘하는 긍정적인 경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물리적 맥락’의 경험과정은 세부요소인 ‘선행 조직자들과 오리엔테이션’, ‘이벤트 및 체험의 강화’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 전 미리 현장실습 기관으

로부터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현장실습을 위한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무용전공자는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무용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의 교육적 가치의 우수성을 재인식 하는 경험이 되었고,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와 관련된 진로 모색에 긍정적인 경험이 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넷째, 무용전공자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경험분석을 통한 개선점을 분석한 결과,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의 '개인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물리적 맥락'에 따른 경험과정 분석을 통해 각 맥락간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은, '기관선정 및 관리의 문제', '실습시간 운영구조의 문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을 위한 교과과정 연계성의 문제'로 분석되었고,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의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에서의 경험과정에 대해 맥락적 학습모형 이론을 적용하여 무용전공자의 현장실습 경험과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장실습의 다양한 의미와 문제 사항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무용전공자가 현장실습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고, 타인과 협업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로서 긍정적인 경험을 습득하고 진로 방향을 계획하는데 계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무용전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 다양한 예술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앞으로 팬데믹이나 4차산업의 영향으로 온라인 수업 방식이 확대 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온라인 방식의 효과적인 현장실습 수업의 운영체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결과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와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체계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현장실습 운영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인애, 설연경(2009).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학습이론으로서 ‘전시물기반 학습’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조형교육학회*, **33**, 1-38.
- 강인애, 이현민, 김양수(2015). 온라인 박물관을 활용한 시각문화미술교육의 수업사례 : 맥락적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중심으로 . *한국조형교육학회*, **56**, 1-34.
- 권남희, 조희선, 최재영(2017).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 참여자의 체험연구 :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2**(5), 55-82.
- 권영임, 차수정(201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가치와 발전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601-617.
- 김민정(2017). 문화예술교육사 연수 여부에 따른 무용교육이론 및 무용지도 능력 비교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17**(1), 23-31.
- 김민주(2016). 드라마 활동을 통한 초등 5-6학년의 맥락적 음악 감상 학습 방안. *한국교육연구학회*, **8**(2), 1-24.
- 김성영(2017). 맥락적 학습모형에 의한 어린이 관람객의 박물관 학습경험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김수진, 오을자(2017).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도입에 따른 대학 무용학과 교과현황 조사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5**(4), 19-27.
- 김이훈(2013). 맥락적 학습모형을 활용한 미술관 교육활동지 개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민성훈(2017). 박물관 모바일 교육 프로그램에 나타난 맥락적 학습모형(Contextual Model of Learning)의 요소 분석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어린이체험전시실 사례를 중심으로. *박물관교육연구*, **17**, 111-130.
- 박경선, 나일주(2011). 교수-학습 환경에서의 맥락설계 원리 및 모형 개발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7**(1), 1-37.
- 박지숙(2009). 무용전공생의 교사사회화 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무용기록학회*, **16**, 25-51.
- 박연희(2012). 박물관 교육의 국제적 동향 : 관람객의 학습을 위한 ‘맥락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 탐구. *동원학술논문집*, **17**, 99-113.
- 서예원(2007). 실제적, 맥락적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초등교사의 역할 : 4학년 과학과 “에너지” 단원의 교수전략 및 학습자료 활용. *한국초등교육학회*, **20**(2), 75-111.
- 윤혜선, 김예진(2019). 표현예술상담 수업에 대한 무용전공자의 경험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36**(2), 61-78.
- 조우리(2015). 맥락적 학습 요소에 따른 구성주의적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효과 분석 연구 : 제주 돌문화공원 교육프로그램 사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희선, 권남희, 최재영(2018).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실습 운영 체계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3**(5), 87-108.
- 탁지현(2018).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질적 개선 방안 모색 : 무용 분야의 교육과정 및 취업연계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3), 217-235.
- 차은주(2018). 문화예술교육사(Teaching Artist)의 효율적인 교수행동 전략 : 무용분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2), 569-588.
- 최용아(2016). 무용분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홍서현(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홍애령, 박재근(2018). 대학 무용학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인정 전공교과의 체계적 학습모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35**(2), 51-65.
- 홍애령, 임수진(2020).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현황 분석 및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의 개념화. *한국무용과학회지*, **37**(2), 59-72.
- Falk, J. H. & Dierking, L. D. (2007). *박물관교육의 기본*. (노용, 이주연, 류지영 공역). 미진사. 서울.

ABSTRACT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a Dance Major on Field Placement Course for Art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or

Yehjin Kim* · Hye-Sun Yoon**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qualitative improvement plan on field practice oper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meaning of field practice experience process of dance major based on a class named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The Field Art and Culture Education'—the curriculum for training art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or.

For the research method, in-depth interview is conducted via asking open-type inquiries constructed based upon contextual model of learning theory. Further for the measurement method, classification method of contextual learning model, including 'personal context', 'sociocultural context', and 'physical context', is applied as classification criteria. Also, the open-type surveys and interview recording data are collected and are analyzed through the meeting of experts.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 process on the detailed elements of 'personal context', which are 'expectation and motivation', 'interest and belief behalf of prior knowledge', and 'selection and control', are analyzed; Second, the detailed elements of 'sociocultural context', or the experience process on 'sociocultural interventions within groups' and 'interventions promoted by others', are analyzed; Third, the detailed elements of 'physical context', or the experience process on 'prior organizers and orientation' and 'event and experience strengthening', are analyzed; Fourth, in order to search the points to improve through analysis on art and culture education field practice experience of a dance major, the analyzed result upon the problem that intervenes the interaction between contexts derived from three types of coherent experience analyzing process on contextual learning model for the following improving methods for each is suggested: 'the problem of selection of an institution and the management', 'the problem of the operation structure of practice hours', and 'the problem of linking the curriculum with field placement on art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or'.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earch results will be utilized as useful data for the professors and reserved art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ors who are striving to build systematized learning environment of field practice class on art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or and further will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field placement operation system for art and culture education.

Key words : art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or, field placement, dance major, contextual model of learning, experience research

논문투고일: 2021.03.02

논문심사일: 2021.03.30

심사완료일: 2021.03.30

* Instructor, Department of Dance, College of Performing Arts, Dongduk Women's Univ.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ance, College of Performing Arts, Dongduk Women's Univ.